

##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 : 2013. 1.14

위원정수 : 7명 재적위원 : 7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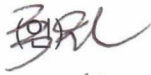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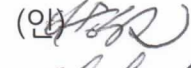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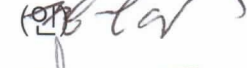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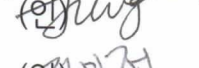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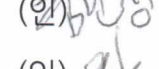

1. 일 시 : 2013. 1.22(화)
2. 장 소 : 본 대학 205호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총장, 기획처장, 이주원(위원장, 교원), 이승원(교원), 정지열(직원), 이현민(총학생회장), 정진우(대의원의장), 김민정(가족복지과 학회장), 이지홍(세무사) (이상9명)
4. 안 건 : 가.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심의  
나. 2013학년도 평생교육원 시간제등록생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5. 회의내용
  - 총장은 먼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. 이어 새로이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다. 총장은 우리대학의 등록금 정책을 간략히 소개하며 최근 3년간 동결, 작년에는 5%인하에 이어 올해도 1% 인하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다. 아울러 우리대학이 서울소재 타 대학에 비해 등록금액수가 18%정도 낮음을 설명하다.
  - 위원장은 안건에 들어가 먼저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을 검토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.
  - 위원장은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과 관련, 작년에도 서울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3%를 인하할 때 우리대학은 5%를 인하하였고, 올해도 서울지역은 모두 동결이지만, 우리대학은 입학금 및 등록금을 각각 1% 인하하였고,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모집하는 학사학위전공 심화과정의 등록금 역시 작년 대비 1%인하하였음을 아울러 설명하다.
  - 심의에 들어간 위원들은 참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근 몇 년간 우리대학의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1%를 추가 인하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학교 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다.
  - 정지열위원의 동의에 이어 정진우위원이 재청하여 원안대로 가결되다.
  - 다음은 2013학년도 평생교육원 시간제등록생 등록금 책정(안) 심의에 들어가, 시간제등록생 등록금은 학점은행제에 준해 전년도와 동일한 학점당 70,000원에 책정한 배경을 현 평생교육원장인 이주원위원장이 설명하자 이승원위원의 동의에 이어 이현민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.
  - 이지홍위원은 학교 측의 등록금 인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, 앞으로는 새 정부의 반값 등록금 시책에 맞추어 좀 더 인하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.
  - 이현민위원과 김민정위원 역시 학교 측의 인하노력에 감사하며, 앞으로도 우리대학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정책을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.

-위원들은 두 안건 모두 학생들을 배려한 적절한 책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모두 원안에 동의하다.

-위원장은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.

2013. 1.22

위 회의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.

위원장	이 주 원	
위 원	이 승 원	(인) 
	정 지 열	(인) 
	이 현 민	(인) 
	정 진 우	(인) 
	김 민 정	(인) 
	이 지 흥	(인) 

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
2013. 1.22

0 0 '2+0'

승의여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장 

승의여자대학교총장 귀하